

문화 팔짝이는 전통시장

장성 출신 김영중 조각가 삶과 예술세계 조명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에냥 8월호



광주일보에서 발행하는 문화예술 매거진 '에냥' 8월호가 나왔다. 이번 호 특집은 '팔짝이는 문화, 여기는 전통시장'을 주제로 다뤘다. 쇠락하던 전통시장이 문화와 접목한 후 어떻게 문화시장으로 변화하고,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끄는지 살펴 보면서 1913송정역시장과 대구 서문시장, 전주 남문시장 등 입소문 난 전통시장들을 들여다 봤다.

이달의 예향 초대석에는 김수영(35) 사회적이기 드림파노라마 대표를 소개한다. 여수 출신인 김 대표는 중학 시절 '문제야'로 방향했지만 20대 중반에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꿈 목록을 작성한 후 '지구별'을 무대로 거침없이 하나하나 이뤄갔다. 그리고 저술과 강연을 통해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꿈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취업준비생 4명 중 1명은 '공시족'(공무원시험 준비생)인 현실 속에서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물음표를 던지는 김 대표의 삶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획 시리즈 '사람이 브랜드다'의 20번째 주인공은 장성출신 조각가 김영중(1926~2005)이다. 세종문화회관 '비전상', 천안 독립기념관 '불굴의

한국인상', 광주 관문 '무지개 다리' 등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긴 작가의 삶과 예술을 조명했다. 최근 영국 여행을 다녀온 최영훈 화백은 이달부터 두 차례에 걸쳐 '그림과 함께 한 음악여행'을 선보인다. 여행도중 틈틈이 스케치한 그림과 함께 스코틀랜드 민요와 비틀즈 명곡, 플라시도 도밍고의 오페라 얘기를 들려준다.

문화평론가인 정운수 한신대 교수는 시대적인 상황에 처한 두 예술가의 서로 다른 행로를 살펴보는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 연재를 새롭게 시작한다. 첫화는 스탈린 시대의 음악가인 프로코피에프와 소스타코비치이다. 노중훈 여행작가는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프랑스 동남부 룬알프스주의 예비앙, 이부아르, 사모니로 독자들을 이끈다.

이 밖에도 신인 1차 지명을 받은 KIA 타이거즈 키즈 우승팀 투수와 낙죽장도장(烙竹粧刀匠) 한상봉 명인(중요 무형문화재 제60호)을 비롯해 '무진기행' 작가 김승옥의 특별한 전시, 운동주 시인의 숨결을 따라 가는 문학기행, 광주 양림동의 '1930 양림살롱' 등 읽을거리가 다채롭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양옥의 변신... 갤러리

동네 친구집 온 듯...산책길 친근한 그림 감상

29일 문연 광주남구 대성초 인근 소암갤러리

서예가 김영춘 자택 리모델링...관장에 위재한 작가
12일까지 개관 기념 아트그룹 '모모임' 창립전
지역작가 무료 대관...2층은 손자 양호열씨 작업실

최근에는 굳이 화이트큐브(메모나 하얀 벽으로 된 현대 미술전시장을 이르는 말)가 아니라도 미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비어있는 창고, 카페, 호텔, 병원, 길거리 등 장소 제한없이 갤러리가 생기고 있다.

이런 대안공간들의 특징은 친밀함에 있다. 큰 규모를 자랑하는 정식 미술관과는 달리 동네 한구푼이에 자리잡으며 우리네 일상 생활과 호흡을 같이 한다. 지나가다 혹은 버스를 기다리다 잠시 들러 미술작품을 감상해도 좋고 찬찬히 살펴봐도 좋다. 운이 좋으면 작가를 만나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지난 29일 개관한 소암갤러리(관장 위재한·광주시 남구 서동)도 첫인상은 낯설지 않다. 대성초등학교 인근 버스정류장 옆에 자리잡은 2층 양옥을 개조해 갤러리로 재탄생시켰다. 동네를 거닐다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 입구에 써진 'SOAM culture space'를 못봤다면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다.

내부를 들어가면 마치 친한 친구 집을 방문하는 느낌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신발을 신고 들어간다는 점이다.

예전 거실로 쓰였던 공간에서는 벽면을 따라 작품 10여점이 보인다. 한쪽벽은 유리창을 설치해 전반적으로 밝은 분위기였다.

리모델링 전에는 35평(115㎡) 공간이 거실, 방 등 6개로 나뉘져 있었다. 안전상 최소한만 놔두고 벽을 다 허물어 널찍한 느낌을 준다.

이제는 사람이 생활했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지만 2층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은 예전에 가정집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집은 1960년대 후반 공직자로 재직하며 서예가로 활동한 소암 김영춘 선생이 지었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2층 양옥을 직접 설계하고 건축해 1남4녀를 이곳에서 키웠다. 소암 선생 작고 이후 비어 있던 집을 셋째딸 김경자(전북대 교수)씨가 물려받았다.

김씨의 아들은 지역에서 작품활동을 하는 양호열 작가다. 양 작가가 2층을 작업



지난 29일 광주시 남구 대성초등학교 인근에 가정집을 개조한 소암갤러리가 개관했다. 2층 양옥으로 1층은 전시실, 2층은 양호열 작가 작업실로 사용된다. <모모임 제공>



아트그룹 '모모임' 창립전 '모호(模糊)한 길'이 열리고 있는 소암갤러리 내부 모습.

실로 사용하던 층 집을 수선할 필요를 느꼈고 평소 문화 콘텐츠에 관심 있던 김씨는 1층에 갤러리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인근에 있는 학교와 연계해 문화적 분위기를 더해보자는 생각에서다.

친분이 있었던 위재한 작가가 관장직을 맡아 지난 3개월간 진행된 리모델링 작업을 책임졌다. 김씨는 주변 땅을 더 확보해 공간을 넓혔다. 원래는 다른 건물로 입구

앞에 있어 도로쪽에서는 갤러리가 잘 안보였지만 최근 허물어진 점도 보이지 않게 도움이 됐다.

개관전으로는 올해 결성된 아트그룹 '모모임'(MOMOIM) 창립전 '모호(模糊)한 길'이 8월12일까지 진행된다.

'모모임'은 '모든 것은 예술이다'는 이념 아래 지역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모인 단체다. 위재한, 양호열 작가를 비롯

한 공진열(일본), 김석민(미국), 김인경, 김성결, 김영희, 나상세, 박기태, 박영철, 서영기, 송지윤, 이정기, 이충우 작가가 소속돼 있다. 또 전시기획자로는 이이라 함평군립미술관 학예사, 박은지 리재갤러리 큐레이터가 참여하고 있다.

공간 특성을 살려 작품을 배치했다. 길이 1.5m가 넘는 김성결 작가의 회화 '친구들'은 넓은 거실에 걸렸다. 나상세 작가의 설치작품 'City move'는 관람객 이동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마당으로 통하던 가장 안쪽에 설치했다.

박영철 사진작가가 드론으로 찍은 'Eye in the Sky'은 약 1km 크기 자투리 공간에 걸려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갤러리는 지역작가들을 위해 무료로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작가들이 전시를 하면 팸플릿 등 홍보도 지원해줄 방침이다.

김경자 대표는 "어렸을 적 살던 집이 갤러리로 바뀌니 감회가 새롭다"며 "기회가 된다면 비어있는 뒷집을 구입해 갤러리 겸 카페로 꾸밀 생각이다"고 밝혔다.

문의 010-5609-400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품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로1번지 1층)

아프리카 쇼나조각
양크르 전시회
*400여점 전시

에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6년 8월호

7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팔짝이는 문화, 여기는 전통시장

1913 송정역시장

이 특집
팔짝이는 문화 여기는 전통시장

광주의 전통시장 살린 문화 앤솔러진
재단장 후 뜨거운 사랑받는 1913송정역시장
문화공간으로 입소문난 화제의 전통시장들

노중훈의 꿈의 여행록
개성 만점의 삼색 도시를
프랑스 룬알프스

전남의 미래, 다도해를 가다⑦-진도
보물섬 진도와 아름다운 이웃 섬들

남도 문화탐

자연의 풍류, 문화의 향기 그윽한 죽창
떡갈비 분고장, 갖가지 별미 넘치네
정성 기운 한가두, 대나무 축제

문화 화제
작가 김승옥의 특별한 전시
화폭에 스며든
'무진기행'의 감성

문학 기행
운동주의 숨결을 따라
일본 도시시대에서
후쿠오카 형무소까지

여행이 만난 이 사람
무상임대로 집 내내
정년 셰어하우스 만든 김현승
신인 1차 지명 받은
타이거즈 키즈 투수 유승철

예향 초대석
세상을 깨우는
'꿈꾸는 유목민' 김수영
"난 어딜 향하고 있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남도의 장안들
대나무 위에 불로 새긴 거품
낙죽장도장 한상봉

정운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1)
스탈린 시대 음악의 별들
프로코피에프와 소스타코비치

작가 최영훈의 그림과 함께한 음악여행-1
영국이 아름다운 건
음악이 있기 때문인가?

문화 풍경
문화를 갈망하는 당신 오세요
1930양림살롱

전시 화제
2016광주
아트페어
아면 모습
보여줄까?

전북 문화예술 공간을 찾아서③
전통과 농악의 감성놀이만 이끄는
고창농악보존회
한창호의 시니어 필라
우디 앨런 <이러서 널 만>

스타 데이트
"우울함 벗어 던질 수 있어 참나 캐리커"
tvN '싸우자 귀신아' 발랄 귀신 연기, 김소현